

2021 NEW

나 없이 EBS 풀지마라

◆
수능특강
현대문학편

☞ 521개의 논문 인용
☞ 647개의 평가원 선지

전형태 편저



나BS 특징

이 책의 활용법

나BS 수능특강 | 현대문학

나BS 문학편은 논문을 담았습니다.

출제자는 전공자의 논문을 통해 보기와 선지를 구성합니다.
나BS [고전문학편]과 [현대문학편]은 수 많은 논문을 인용하여
EBS를 분석합니다. **출제자의 시선으로.**

LBS 나 없이 EBS 풀지마라

현대시

4. 김소월, 남의 노래

Step
04

논문으로 만나는 출제자의 시선

나BS 수능특강 | 현대문학

김소월의 삶과 시적 경향

김소월은 1902년 평안북도 출생으로 본명은 김장식이며, 소월은 그의 아호이다. 김소월은 1920년에 등단해서 1934년에 32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30여년의 생애 동안 그가 시작 활동을 했던 기간은 14년으로 다른 문인들에 비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시간 동안 김소월은 한국문학사에 길이 남을 공적한 족적을 남겼다. 일제 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상황에서 태어난 김소월은 그가 태어난 지 불과 2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일본인 목도꾼들에게 일방적으로 목숨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된다. 이후 소월의 아버지는 그 때의 충격으로 관생을 창신 이상자로 살게 되었고, 소월은 관산을 운명하는 조부의 손에서 크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 속모였던 개화정을 통해 김소월은 전래 설화와 민요를 접하게 되었고, 이때의 경험은 추후 소월의 작품 세계에도 영향을 준다. 이후 소월은 평안북도 곡산 남산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5년 평안북도 장수 오산 고등보통학교에서 조만식과 그의 소승이 될 강익을 만나게 된다. 오산학교 재학 도중인 1916년 할아버지의 주선으로 14세라는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의 친구의 손녀인 홍단실과 결혼한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오산학교가 문을 닫자 경성 배재 고등보통학교 5학년이 편입해서 졸업했다. 그리고 1920년 스승이었던 김익의 권력을 통해 동인지 (창조) 5호에 처음으로 시를 발표하여 등단했다. 1923년에는 일본 도쿄 상과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같은 해 9월에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중퇴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 무렵 그는 서울 청담동에서 나도형과 만나 친구가 되었고 그의 함께 (영대)의 동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25년에는 김소월이 생전에 낸 유일한 시집 (진달래꽃)을 발간한다. 김소월은 고향으로 돌아간 후 조부가 경영하는 관산 일을 도왔으나 잘 되지 않자, 차가르 이사하여 동이일보 지국을 개설하여 운영 전반을 도맡아 하였는데 이마저도 실패하는 바람에 극도의 빈곤에 시달렸다고 한다. 본래 예민했던 그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술로 세월을 보냈으며, 친척들한테도 천시를 받았고 일본의 압박으로 부인과 동산 지살 기도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남'은 그의 이러한 불행한 가족사를 포함한 비극적인 역사·사회적 현실에서 파생된 구체적인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의 시 세계에는 늘 못 다 이룬 꿈과 사랑이 있고, 식하지 못한 한이 흐르고 있으므로 그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연민으로 작용하게 하는 점이 된다. 또한 소월은 한국의 보편적인 정서를 토대로 하고 위조받는 것으로 자연공간을 상징하면서 민족의 자연신앙적인 면을 승화하였고, 고전적 정감과 기악의 원형성을 새롭게 계승하였다.

창작과 표현 기법에 있어서도 소월은 자연 발생적인 리듬과 운율을 바탕으로 내면의 사랑과 꿈을 풀어내는 민요시의 형식을 택한 것이 자주 드러난다. 김소월 시를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적 요소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지 않은 개인적 정서인 사랑에 대한 상실감과 그리움, 그리고 식민지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나라 잃은 절망감과 현실에 대한 저항의지가 동시에 드러난다. 사랑하는 대상인 '남'에 대한 이별의 정현(情眼)을 노래하고 그리움 속에서 남과의 만남을 희구하는 한편, 집, 땅, 곶 등 을 모티브로 하여 나라 잃은 상실감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당대에 대한 저항의지를 표출했다. 또 시대정신에 바탕을 둔 공동체 의식을 획득하여 이상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낙원 지향 의식을 보여준다.

'그리운'의 사용과 이학적 세계의 공존

그러나 자다 깨면 남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읽어 버려요

일반적으로 '그리운'은 앞의 전술에 대한 반대의 내용을 이어갈 때 쓰는 것인데, 이는 시보다는 산문에 적합할 것이다. 하나의 이미지와 의미를 일관되게 형성하는 시 보다는 인물과 사건을 다루는 서사문학에서 '그리운'이 더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소월의 경우 '그리운'을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립적인 시적 상황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남의 노래」는 접속부사 '그리운'의 출현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 화자가 남의 노래를 들으며 기억하던 세계와 정에서 깨어 있어버리고 이는 대립적인 두 세계로 나뉘게 된다. 또한, 시에서 '그리운'은 남의 부재로 인한 절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마치 순간적으로 고통에서 깨어나는 상황처럼, 잠에서 깬 후부터는 남의 노래를 듣거나 떠올릴 수도 없이 잊게 된 비극적 정서로 변주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시

4 김소월, 남의 노래

수능특강 74page

2021 수능 국어 대비
실전 국어 진형테

Step
01

OX 문제를 통한 지문 이해 훈련

나BS 수능특강 | 현대문학

그러운 우리 남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있어 있어요

긴 날을 문방에서 서서 들어도
그러운 우리 남의 고운 노래는
해 지고 자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도 잠도도록 귀에 들려요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쳐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프스근히 깊이 들어요

그러나 자다 깨면 남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읽어 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남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OX 문제

- 01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02 정황적인 문율을 실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2009학년도 9월] (O / X)
- 03 시적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2011학년도 수능] (O / X)
- 04 시선의 이동 경로에 따라 여러 사물의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009학년도 6월] (O / X)
- 05 화자에게 '남의 노래'는 잠에서 깨고 나서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O / X)
- 06 생체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018학년도 6월] (O / X)
- 07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2020학년도 9월] (O / X)
- 08 '긴 날'이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가 '남'을 오랜 시간 그리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O / X)
- 09 '읽어버려요' '잊고 말아요'를 통해 이제는 '남'을 잊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나타난다. (O / X)
- 10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2011학년도 6월] (O / X)

Step
02 지문 분석

나BS 수능특강 | 현대문학

시 전체적으로 가곡조의 정형적 율격과 3음보의 운율이 나타난다.

1-1 "희자의 고독한 태양"
그리운 우리 남의 맑은 노래는
창간의 시정화 : 할바(4행) + 노래(4행)

언제나 게 가슴에 꽃이 있어요
달의 등잔화 : 노래(4행) + 꽃이(4행)
→ 남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마음 속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함

1연 : 언제나 마음에 꽃이 있는 그리운 남의 노래

긴 날을 문밖에서 서서 들어도
희자가 있을 그리워한 시어는 할바 일음을 알아함

그리운 우리 남의 고운 노래는
창간의 시정화 : 할바(4행) + 노래(4행)

해 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마 : 조여도를 희자의 귀에 들리는 남의 노래
→ 그리움의 정서를 일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2연 : 해가 저물고 밤이 되어도 귀에 들리는 남의 노래

고이도 혼들리는 노랫가락에
창간의 시정화 : 노랫가(4행) + 혼들(4행)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직한 잠자리엔 홀로 누워도
밤의 무리로 인한 희자의 자아 파조음의 정서가 나타난다.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3연 : 남의 노래를 들으며 깊어 가는 '나'

그리나 자다 깨면 남의 노래는
시적 상징의 반목을 지어내는 역설함
→ 희자의 상징과 정서의 비극적으로 변주함

하나도 남김없이 읽어버려요
마 : 남의 노래를 읽고 깨는 희자
역설 : 희자의 의의는 상징적인 남의 노래를
읽거나 읽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비극적 정서를 일화함.

들으면 듣는 데로 남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읽고 말아요
4연 : 잠에서 깨면 읽어버리는 남의 노래

시어 시구 풀이

맑은 노래 → 화자에게 듣게 들리는 남의 노래

언제나 게 가슴에 꽃이 있어요 → 남의 노래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 동시에 언제나 남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표현

긴 날 → 화자의 남에 대한 기다림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왔음

문밖에서 서서 들어도 → 문 밖에 서서 남의 노래를 들으며 남을 기다리는 화자

고운 노래 → 화자에게 듣게 들리는 남의 노래

해 지고 저물도록, 밤들고 잠들도록 → 오랜 시간 남의 노래가 들림, 화자의 그리움을 의미

고이도 혼들리는 노랫가락 → 노래의 음과 높낮이가 갖기에 혼들리듯 들린다고 표현함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 남의 노래를 들으며 그만 깊이 잠들어 버리는 화자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 남 없이 홀로 하는 외로운 잠자리이지만, 남의 노래를 들으며 포근하게 깊이 잠드는 화자

그리나 → 시적 상황의 반전이 나타나며, 그리움의 정서가 비극적인 정서로 변주되도록 하는 접속부사

하나도 남김없이 읽어버려요 → 화자는 자신의 의지와 달리, 잠에서 깨어나면 남의 노래를 모두 읽어버림. 의지와 상반되는 역설적 상황이 비극적 정서를 부각함.

시평장에 강한 살인 국어 친형대

Step
03 작품 해제

나BS 수능특강 | 현대문학

-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 특징
① 3음보의 운율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함.
② 7·5조의 정형적인 율격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획득함.
③ 다양한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함.
- 작품 해제
이 시는 '남의 노래'를 소재로 하여, 남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정서를 주제로 삼고 있다. 작품의 7·5조의 정형적 율격은 시의 구조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시에 3음보의 운율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1-3연에서는 다양한 감각적 시어를 통해 남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정서가 절절하고 애뜻하게 표현된다. 특히,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남의 노래가 들려온다'는 화자의 맑은 남에 대한 시적 화자의 그리움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4연의 '그리나가 등장하면서부터, 화자가 남의 노래를 들으며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나면 남의 노래를 읽고 만다. 이렇게 화자의 의지와는 상반되는 역설적 상황이 비극적 정서로 변주되면서, 이별의 정한을 심화시킨다.

나BS 문학편은
치밀하고 철저합니다.

모든 지문의 구조 분석, 작품 해제와 주요 시어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토록 치밀하고 철저한 EBS 분석은 수험생이 수능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를 바라는
전형대 선생님의 피나는 노력입니다.

나BS 문학편에는
평가원 기출이 있습니다.

나BS에는 평가원 선지가 수록되었습니다.
평가원의 개념으로 EBS를 분석할 수 있도록,
평가원 기출 선지로 O.X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Contents

이 책의 순서

나BS 수능특강 | 현대문학

PART 01. 현대시

			나BS	수특
1	춘설	정지용	08	09
2	눈물	김현승	15	31
3	배꼽을 위한 연가 5	김승희	19	35
4	님의 노래	김소월	24	74
5	수의 비밀	한용운	30	74
6	윤사월	박목월	36	76
7	자화상	윤동주	41	76
8	두보나 이백같이	백석	45	78
9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고성희	51	79
10	꽃	이육사	55	82
11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60	82
12	산상의 노래	조지훈	65	85
13	꽃뎐불	신석정	71	86
14	사령	김수영	77	88
15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정호승	82	88
16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87	91
17	홀린 사람	기형도	94	92
18	종소리	박남수	99	95
19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황인숙	103	95
20	풍장 1	황동규	107	98
21	빠빠용-영화 사회학	유하	112	99
22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신경림	116	101
23	들길에서 마을로	고재종	120	101
24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희덕	124	104
25	등꽃 아래서	송수권	128	104
26	무등을 보며	서정주	133	242
27	상행	김광규	138	247
28	나비와 철조망	박봉우	142	282
29	초토의 시 8 - 적군 묘지 앞에서	구상	146	282
30	오랑캐꽃	이용악	150	298
31	섬진강 1	김용택	154	298
32	성탄제	오장환	158	313
33	깨끗한 식사	김선우	162	314

PART 02.
현대 소설

		나BS	수특	
1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성석제	168	15
2	도시와 유령	이호석	176	148
3	고향	이기영	184	151
4	김 강사와 T 교수	유진오	192	154
5	미스터 방	채만식	200	157
6	임종	염상섭	208	161
7	동행	전상국	216	165
8	모래톱 이야기	김정한	225	169
9	사막을 건너는 법	서영은	233	173
10	우리 동네 이 씨	이문구	242	178
11	목마른 뿌리	김소진	249	182
12	원숭이는 없다	윤후명	257	187
13	정읍사-그 천년의 기다림	문순태	265	228
14	동행	임철우	272	248
15	변방에 우짖는 새	현기영	280	253
16	해산 바가지	박완서	287	258
17	칼의 노래	김훈	295	264
18	탈출기	최서해	303	269
19	아우를 위하여	황석영	310	270
20	누이와 늑대	한승원	317	285
21	완장	윤홍길	323	301
22	만무방	김유정	331	317

PART 03.
현대 극/수필

1	산돼지	김우진	342	23
2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신영복	351	27
3	호신술	송영	358	205
4	소	유치진	368	210
5	축상락	윤오영	376	213
6	8월의 크리스마스	오승욱 외	380	215
7	결혼	이강백	388	242
8	이재수의 난	현기영	396	254

정답과 해설

시험장에 강한 실전 국어 전형태

2021 NEW

나 없이
EBS
풀지마라



수능특강
현대문학편

PART

01

현대시

✓ 521개의 논문 인용
✓ 647개의 평가원 선지

1 정지용, 춘설

2021 수능 국어 대비
실전 국어 전형태

Step

01

OX 문제를 통한 지문 이해 훈련

나BS 수능특강 | 현대문학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우수절 : 입춘과 경칩 사이의 절기인 우수로, '봄비로 물기운이 가득한 때'라는 뜻임. 양력 2월 18일 경.

*옹송그리고 : 춥거나 두려워 몸을 궁상맞게 몹시 움츠려 작게 하고.

*옴짓 아니 기던 : 움직이지 않던.

*햇웃 : 안에 숨을 두어 지은 겨울웃.

OX 문제

- 01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다. [2008학년도 9월] (O / X)
- 02 2행 1연의 구성을 통해 정제된 형식미와 구조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O / X)
- 03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라는 화자의 말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난다. (O / X)
- 04 작품의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과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2019학년도 9월] (O / X)
- 05 '설어라'라는 표현에는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인 현실 인식이 담겨있다. (O / X)
- 06 화자는 자연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과 대비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010학년도 9월] (O / X)
- 07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정취를 담아내고 있다. [2019학년도 수능] (O / X)
- 08 풍경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화자의 감상을 표현하는 선경후정의 방식이 나타난다. (O / X)
- 09 화자는 영탄적 어조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O / X)
- 10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2017학년도 9월] (O / X)

Step 02 지문 분석

나BS 수능특강 | 현대문학

문 열자 선뜻!

영탄적 어조 : 봄눈을 보고 놀란 화자의 심정이 나타남.

먼 산이 이마에 차라.

공감각적 표현 : 먼 산(시각) + 이마에 차다(촉각) → 시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표현 : 먼 산(시각) + 이마에 차다(촉각) → 시각의 촉각화
먼 산의 차가움이 이마에 닿는 것 같다고 표현함.

1연 : 문을 열자 보이는 차가운 먼 산의 풍경

우수절(雨水節) 들어

24절기 중 하나로, 입춘과 경칩 사이의 겨울이 지나 비가 오고 얼음이 녹는 날을 의미.

→ 작품의 계절적 배경

바로 초하루 아침.

시간적 배경

2연 : 우수절 초하루의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옴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공감각적 표현 : 눈이 덮여 빛나는 산봉우리(시각) + 이마에 서늘하게 닿다(촉각) → 시각의 촉각화

눈이 덮여 빛나는 산의 모습이 이마에 차갑게 닿는 것 같다고 표현함.

3연 : 눈 덮여 빛나는 서늘한 산의 풍경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자연의 모습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공감각적 표현 : 흰 옷고름(시각) + 향기로워라(후각) → 시각의 후각화

봄바람에 날리는 흰 옷고름에서 느껴지는 향기

4연 : 봄바람에 날리는 화자의 옷고름

웅숭그리고 살아난 양이

겨울동안 움츠리고 있던 것들이 봄이 되어 깨어난 모습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화자의 감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 영탄적 표현.

'설어라'의 해석 ① 서러움 : 지난 겨울의 삶을 회상하며 화자가 느낀 서러움.

② 낯설음 : 봄의 생명력을 보며 느낀 화자의 낯설음.(역설적 의미가 됨)

5연 : 봄의 정경을 보며 감상에 젖는 화자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돌고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생동감 넘치는 봄의 모습을 표현.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6연 : 생동감 넘치는 봄의 모습

시어 시구 풀이

문 열자 선뜻! → 문을 연 화자가 보이는 풍경에 놀라는 심정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함.

먼 산이 이마에 차라. → 문을 열자 보이는 먼 산의 풍경이 마치 이마까지 닿아 차갑게 느껴지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우수절(雨水節)들어 / 바로 초하루 아침 → '우수절(입춘과 경칩 사이)'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초하루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제시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 서늘옴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 눈 덮인 산의 모습이 바로 눈 앞에 펼쳐진 듯한 풍경을 '이마받이'한다고 표현함. 눈 덮인 산의 서늘함과 햇빛을 받아 빛나는 모습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함.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 봄이 오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봄바람이 불어오는 정경을 표현함. 화자의 흰 옷고름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통해 봄의 정취를 공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웅숭그리고 살아난 양이 → 겨울 동안 움츠리고 있던 것들이 봄이 되어 깨어나는 모습을 표현함.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 봄의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지켜보며 그것이 '꿈 같'다고 영탄적 어조로 말하는 화자. 이때의 '설어라'는 서러움 혹은 낯설음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함.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돌고 /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 봄의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음.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숨을 넣어 지은 옷 '춥고 싶어라'의 중의적 의미

- ① 겨울이 가는 것의 아쉬움.
- ② 겨울옷을 벗고 봄의 기운을 느끼고 싶음.(역설적 의미가 됨)

7연 : 봄이 오기 전 내린 때 아닌 눈에 봄기운을 만난 화자의 감상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 '철 아닌 눈'은 3연에서 화자가 본 눈으로, 화자에게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음.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추운 겨울에 입었던 솜옷을 벗고 도로 '춥고' 싶다는 화자의 말은 겨울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거나 겨울옷을 벗고 봄기운을 느끼고 싶다는 2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함.

Step

03

작품 해제

나BS 수능특강 | 현대문학

주제

봄눈이 내린 자연의 풍경을 보며 느끼는 봄의 생명력

특징

- ①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 ② 선경후정과 2행 1연 구성이라는 한시의 형식이 나타남.
- ③ 다양한 심상과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봄의 정경을 생생하게 표현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겨울이 지나 봄이 오기 시작하는 시기에 때 아닌 봄눈으로 뒤덮인 산을 보고 화자가 느낀 감정을 감각적으로 그려낸 시이다. 화자는 절제되고 차분한 목소리로 봄눈이 온 풍경을 바라보며, 봄눈이 주는 차가운 기운을 이마로 느끼고 있음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다. 또한, 화자는 '얼음 금 가고', '미나리 파릇한 새순',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등의 시각적 심상을 통해 생동감 있는 봄이 오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한편, 5연의 '꿈 같기에 설어라'와 7연의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5연의 '설어라'는 다가온 봄을 보니 지난 겨울의 기억이 서럽게 느껴지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른 봄의 풍경을 낯설게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7연의 '춥고 싶어라'는 지나간 겨울이 아쉬워 다시 겨울이 와서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반면 이른 봄도 아직은 춥기에 어서 '햇옷'을 벗고 추운 봄의 기운을 느끼고 싶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Step

04

논문으로 만나는 출제자의 시선

나BS 수능특강 | 현대문학

'산'이라는 공간이 시인에게 지니는 의미

산수 자연은 인간의 삶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간의 유한성을 반추하는 공간이자 영원히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인식된다. 산수만큼 오랜 세월 동안 문학적인 소재로 애호된 것도 없을 만큼 산수와 문학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첫 시집을 발간한 후 지용은 국토 순례를 하면서 우리 고전의 형식인 산수시의 형식과 내용을 빌려온다. 산수시란 산수의 경치를 묘사하면서 그 속의 함의나 유추를 통해서 시인의 의중을 말하는 것이다. 지용의 산수시에는 단순한 산수의 묘사뿐 아니라 식민지 시인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근대의 시간에서 과거는 철저히 지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용에게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어 온 것이다. 「춘설」에서 보듯이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시간이란 변화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변화된 결과는 공간 속에서 실체화 될 때 인간이 감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은 별개가 아니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끊임없이 운동과 변화를 계속한다.

지용은 변절과 친일을 강요당하던 일제의 압력 속에서 자신을 숨기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무(無)화시켜 산수 자연에 침잠했다. 결국, 지용은 일제의 폭압 앞에서 산수 자연에 파묻혀 시간과 공간을 무(無)화시킴으로써 영원성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용이 그의 시에 나타나는 시간은 '사실 그대로'를 넘어 '구성된 사실'로 형상화된다.

정지용의 삶과 시적 지향

정지용은 1902년 충청북도 옥천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정지용은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도시샤 대학에서 영문학과를 전공하며 유학 생활을 했다. 그는 이 시기 1926년 6월, 유학생 잡지인 『학조』 창간호에 「카페 프란스」를 발표하면서 등단한다. 1929년 대학 졸업 후 귀국하여 1945년 8·15 해방 때까지 모교인 휘문고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했다. 1930년 김영랑과 박용철이 창간한 「시문학」의 중심 동인인 정지용은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장을 연 시인으로서 1930년대 한국 시단을 주도하였으며, 1939년에는 「문장」의 시 추천위원을 지내면서 청록파 시인이었던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과 윤동주, 이상을 발굴해내며 한국 시단의 굵직한 후진들을 양성했다.

정지용이 시단에 등장하여 본격적이고 눈부신 활동을 한 1930년대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기이다. 수많은 한국인이 삶의 터전을 빼앗겼으며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 일제의 억압 정책이 강행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것들이 궁핍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문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시기이기도 했다. 한국 현대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고 새로운 시적 풍토가 조성된 한국 현대시사의 전환기적 의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 이전의 한국 시단에는 1920년대 이래의 낭만주의적 감상과 외래 사조의 무분별한 수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낭만주의, 상징주의, 탐미주의, 데카당스 등 외래 사조를 받아들여 근대적인 시와 시론을 수용하였으나, 1930년대에 와서는 시 자체의 예술성에 대한 본격적인 추구가 이루어지면서 현대적 변모 과정을 통해 시에 대한 시야를 넓히게 되었다. 이 시기의 시인들을 순수성을 추구하며 시의 본질에 철저히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현대적 서정 시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지용은 한국 현대시사에서 획기적인 전환기라 할 수 있는 1930년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시인으로 평가된다. 정지용 시가 가지는 의의는 서구의 이미지즘이나 모더니즘 기법을 받아들여 감각적 재치와 절묘한 언어를 구사했다는 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그가 지닌 전통 지향성과 모더니즘 지향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현대시에 이바지했다는 점이다. 그의 시 근원에는 동양적 사상과 고향의 그리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지용을 평할 때 흔히 언어 감각이 뛰어난 모더니스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의 시는 모더니즘의 시와 함께 동양적 정서를 추구하는 전통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외래 사조를 수용하는 현대 지향성과 향토적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 지향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의 전기 시에는 영미 이미지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동양적 전통성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난다. 또한, 서로 다른 문학적 특성이 대립, 갈등의 관계 속에서도 조화와 절충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노력이 엿보인다. 동양 전통의 절제와 여백의 미, 명징성(깨끗하고 맑음) 등의 기법을 현대적 이미지와 결합하여 새로운 시의 경지를 개척하게 된 것이다.

『춘설』이 수록된 정지용의 시집 『백록담』(1941)

정지용이 지닌 동양적 정신은 1930년대 중반 이후의 후기 시편들에서 한층 두드러져 보이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941년 9월 문장사에서 그의 두 번째 시집 『백록담』을 내놓으면서부터이다. 초기의 『정지용 시집』에서 대표되는 자연의 소재는 '바다'로 역동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의 시 경향을 나타냈는데, 후기의 『백록담』에서는 그것이 '산'으로 변모한다. '산'을 주제로 한 시는 대부분 『백록담』에 실려 있다. 또한, 정지용의 산을 주제로 한 시에는 흰색의 이미지가 거의 모든 시에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백록담』에는 산에 관련된 시로 동양적 사상이 나타나는 산문시와 2행 1연의 간결한 형태로 여백의 미가 강조된 단시, 그리고 의고체의 활용이 잘 나타난 시들이 주를 이룬다.

시적 대상에 대한 객관적, 감각적 형상화가 초래한 내면세계의 공허함을 종교시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정지용은 동양적인 자연의 깨끗하고 맑은 세계와 접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시와 산문을 검토해 보면 그는 동양의 여러 고전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었으며 그의 이러한 정신이 문학의 저변에 면면히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백록담』에는 시 25편과 산문 8편이 수록되어 있다. 정지용이 이 시기에 보여 준 특징은 감각이나 기교와 같은 순수한 언어 미학적 차원으로부터 의식 세계의 고고함과 유연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를 통해 우회적으로 내면 정신세계의 깊이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동양 시학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정지용의 시에 나타난 자연이란 단순히 객관적인 현실 풍경의 묘사, 혹은 제시에만 머물지 않는다. 또한, 정지용의 『백록담』의 세계는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세계다. 그 자연에서의 자아는 무욕청정(無慾淸淨)의 자연 세계에 귀의(歸依)하여 자연의 선경(仙景)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인생을 관조(觀照)하기도 한다. 이는 정지용이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것은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자세로 이해할 수 있다. 정지용의 시에서 보이는 전통적 정서는 후기로 가면서 점차 인생의 의미가 반영된 자연의 세계로 발전해 간다.

정지용의 시론

정지용의 『문학독본』에는 그의 시론의 성격을 띤 세 편의 글이 있다. 그것은 「시의 위외」, 「시의 발표」, 「시의 옹호」이다. 이를 살펴보면 그의 '극기의 시관'을 발견하게 된다.

안으로 열하고 겉으로 서늘웁기란 일종의 생리를 압복시키는 노릇이기에 심히 어렵다. 그러나 시의 위외는 겉으로 서늘웁기를 바라서 마지않는다. (중략) 남을 슬프기 그 지없는 정황으로 유도함에는 자기의 감격을 먼저 신중히 이동시킬 것이다. (중략) 감격벽이 시의 미명이 아니고 말았다. 이 비정기적 육체적 지진 때문에 예지(叡智)의 수원이 붕괴되는 수가 많았다.

- 정지용, 『지용문학독본』 中 -

윗글에서 그는 격한 감정이 절제되어야 독자의 감동을 살 수 있으며, 시의 위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1920년대의 감상적 낭만시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폐허》와 《백조》를 중심으로 감상주의는 3·1운동의 실패로 암울해진 현실에 대한 비애, 울분, 절망 등의 정서를 격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정지용은 이러한 경향이, 유럽 낭만주의에 편승하여 방법의 발견이나 사상의 확립을 위한 생의 재인식이 실행되지 못한 채 낭만적 격정으로 쓰인 시라며 비판하였다. 감상주의에 대한 정지용의 극복 의지는 그의 절제주의적 시 관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정지용은 이미지 특히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하였다. 또한 사물어와 감각어를 사용하여 사물의 객관화와 구체적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이고 막연한 추상어를 쓰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이미지는 항상 명확하고 한정적이며, 간결하고 집중적이다.

작품에 나타난 자발적 매개 감각과 정신의 확장

「춘설」은 처음부터 화자의 직접적 진술로 시작하여 주관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생명력 넘치는 봄날 아침의 이미지 속에서 눈의 차가운 감각을 부각하고 있다. 「춘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3연은 춘설과의 대면 순간에 대한 묘사, 4-5연은 봄에 대한 주관적 정서, 6-7연은 때아닌 춘설에서 촉발된 새로운 욕망에 관한 서술로 볼 수 있다.

이 시의 1연은 정지용의 감각적 형상화 기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다. '섣뿔'은 동작이 빠르고 시원스러운 모양을 가리키는 부사어로 볼 수도 있고, 기분이나 느낌이 깨끗하고 시원하다는 뜻의 형용사 '섣뿔하다'의 축약형으로 볼 수도 있다. '섣뿔'이 동작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먼 산이 다가오는 모양이 될 텐데, '섣뿔'이라는 부사어에 들어 있는 자발성을 고려한다면 문을 연 화자의 자발성과 망설임 없이 다가서는 산의 자발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된다. 이와 달리 '섣뿔'을 형용사로 보면 '먼 산이 이마에 차라'라는 구절과 호응하여 문을 열자마자 이마에 다가오는 섣뿔한 차가운 느낌의 감각적 선명함을 강조하게 된다.

'먼 산이 이마에 차라'는 정지용이 즐겨 쓰는 'A에 B가 ~하다(B가 A에 ~하다)'라는 구문 구조를 사용하여 차가운 감각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산꼭대기에 쌓인 눈과 이마의 높이를 고려하여 산이 이마 높이로 '가득 차오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에서 '춘설'이 갖는 중요한 이미지가 차가움이며 그것이 마지막 연의 '춡고 싶어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차다'를 감각어로 보는 것이 해석의 일관성을 얻는다. '먼 산이 이마에 차라'는 시각적 감각에서 촉각적 감각으로의 전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차가운 감각은 먼 산의 눈이 직접 닿아서 생겨난 감각이 아니라 춘설의 시각적 이미지로부터 화자의 의식에 전달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신적 감각이다. 그러므로 '차다'는 것은 자연과 화자를 매개하는 감각이며, 그것이 화자에게 어떤 정신성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연의 '이마받이'라는 시어는 자연과 화자의 그러한 정신적 교감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눈이 덮인 멧부리'라는 표현에서 산봉우리에만 눈이 남아 있다고 본다면, '이마'는 화자의 이마뿐 아니라 산의 이마(산봉우리)도 지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마받이'라는 표현은 이마와 이마를 부딪친다는 뜻 그대로의 형상적 적절성을 얻게 된다. 화자는 산과의 이러한 정신적 교감을 '서늘옅고 빛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4연과 6연에는 이러한 서늘하고 차가운 감각과는 달리 향기롭고 파릇하고 생동감 넘치는 봄의 이미지가 묘사되어 있다. 새삼스런 춘설의 차갑고 서늘한 이미지와 봄날의 파릇하고 생생한 이미지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5연에서 화자는 이러한 간극을 감지하고 '옹송거리고 살아난 양'이 낯설다고 말한다. '옹송거리다'는 '춡거나 두려워 몸을 궁상맞게 몹시 웅그리다'라는 뜻인데, 그러한 웅색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꿈같은 일일 것이다.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것은 꽃 피기 직전 이른 봄에 어울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생명력 넘치는 봄을 낯설다고 여기고 오히려 때아닌 춘설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나아가 화자는 '햇옷(솜옷)'을 벗어서라도 추위를 좀 더 본격적으로 느끼고자 한다. 따뜻한 봄의 기운 속에서 차가움을 제대로 느끼려면 '햇옷'을 벗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차가움에 대한 정신적 지향을 보여준다. 화자는 생기로운 봄의 기운이 아니라 차가운 눈의 감각에서 정신의 명징성을 얻고 있으며, 그러한 정신성에 대한 지향을 '도로 춡고 싶어라'라고 표현한 것이다.

정지용은 시에서 봄날 아침의 생동감에 대비하여 '서늘하고 차가운 춘설'을 강조하고 있으며, 눈의 차가움으로부터 전달된 정신성을 유지,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햇옷'을 벗고 차가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눈의 차가운 감각은 문을 여는 화자의 행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자발적 매개 감각이며, 이 자발적 매개 감각은 '햇옷 벗고 도로 춡고 싶어라'라는 화자의 적극적 의지를 통해 정신성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part 1.현대시 | 01 촌설_정지용

정답

1.X 2.O 3.X 4.O 5.X 6.X 7.X 8.O 9.X 10.X

1.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라는 문장으로 시상을 끝맺고 있으므로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었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2. 2행 1연 구성이라는 한시의 작법을 사용하여 정제된 형식미와 구조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3.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에서 겨울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겨울옷을 벗고 봄의 기운을 느끼고 싶어 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난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4. '우수절의 초하루 아침'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적·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시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5. '설어라'라는 표현은 겨울이 가는 아쉬움 또는 봄의 생명력을 낮설게 느끼고 있는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6. 화자는 우수절에 눈 덮인 산을 본 정서를 표현할 뿐, 자연물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7. '흰 옷고름', '햇옷' 등의 시어로 미루어 보아, 화자가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8. 우수절 초하루 아침의 눈 덮인 산 풍경을 먼저 제시한 다음, 그에 대한 화자의 감상이 제시되고 있다.
9. '문 열자 선뜻'에서 영단적 어조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봄눈을 보고 놀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함이지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다.
10. '흰 옷고름', '파랗한 새순'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였으나 이를 통해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역동성'은 힘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대상이 제시되었을 때 허용할 수 있다.

part 1.현대시 | 02 눈물_김현승

정답

1.O 2.X 3.O 4.X 5.O 6.X 7.O 8.X 9.X 10.X

1. '오직 이뿐!'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3. '나아중(나중)', '지니인(지닌)'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나타내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4. 화자 자신의 과거에 대해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있지는 않다.
5. '꽃'과 '웃음'은 변하기 쉬운 것으로서 일시적, 순간적인 기쁨을 상징하며, '열매'와 '눈물'은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서 영구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결실을 상징한다.
6. '웃음'은 현재의 슬픔과 대조되는 화자의 과거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화자는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7. 구도적인 자세란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을 구하려는 자세를 가리킨다. 화자는 '눈물'을 단순한 슬픔의 결정체로 보지 않고, 진정한 삶의 본질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8. 해당 작품에는 색채어가 쓰이지 않았다.

9. 직유는 '~같이', '~처럼' 등의 표현을 통해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에 직접적으로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법을 말한다. 이 시에서는 직유법이 쓰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10. 해당 작품에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다.

part 1.현대시 | 03 배꼽을 위한 연가 5_김승희

정답

1.O 2.X 3.X 4.O 5.O 6.O 7.O 8.X 9.X 10.O

1. '나비-누에고치', '새-껍질' 등과 같은 대립 구조를 통해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 / 당신이 평생 어둠더라도'라는 구절에서 화자의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임은 알 수 있지만,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등과 같은 구절을 통해 삶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3. 화자는 '어머니'에게 '점자책을 사 드리'겠다고,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라고 하며 배움을 통해 깨달음을 얻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냉소적 어조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선지는 허용할 수 없다.
4. 이 시는 고전소설 「춘향전」을 모티브로 하여 '춘향'이라는 인물과, '춘향'이 맹인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빠지는 사건을 차용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5. '-습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6. 시적 화자가 '시를 짓겠다'고 하는 부분을 통해 시인이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다',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는 시적 화자의 말이 시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 단정적 어조는 망설이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와 같은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가 '스스로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화자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 않다.
9. 화자는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지 않다.
10. 화자는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라는 자연의 섭리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part 1.현대시 | 04 님의 노래_김소월

정답

1.O 2.O 3.X 4.X 5.X 6.X 7.O 8.O 9.X 10.O

1. 공감각은 감각의 전이를 말한다. '맑은 노래는 젖어 있어'에서, 청각적 이미지인 '노래'가 촉각적으로 '젖어' 있다고 감각을 전이함으로써 시를 전개하고 있다.
2. '님의 노래'는 3음보의 운율과 7·5조의 정형적인 율격을 통해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나 없이 EBS 풀지마라

국어강사 전형태

대성 SNC 출판 대표

대성마이맥 국어 대표 강사

나 없이 기출 풀지 마라 저자

강남대성 3년 연속 최상위 강의 평가

이강학원 국어과 최다 인원 마감 강사

값 19,000원



9 791188 881314

ISBN 979-11-88881-31-4